

민선 8기 시·도 상생 1호 ‘반도체 특화단지’ 만들기

오늘 도청서 첫 상생발전위 개최
11개 신규과제 등 논의·합의문
군공항 이전·동북댐 정비 모색
혁신도시 발전기금 등 해법 주목

광주시와 전남도가 28일 민선 8기 첫 상생발전위원회를 열고 현안 공동대응 등 지역 발전의 해법을 모색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양 시도의 협력이 절실한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비롯, 빛가람 혁신도시 발전기금 조성 등 민감한 사항들도 주요 의제로 논의 테이블에 오를 예정이어서 진일보한 결과물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2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민선 8기 첫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에서 개최된다.

위원회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윤병태 나주시장, 실·국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공동협력과제를 논의하고 합의문을 발표한다.

관심이 모아지는 민선 8기 시도 상생 1호과제로는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이 될 전망이다.

양 시도는 기술력과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 넓은 입지 등 강점을 바탕으로 지역 반도체 산

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이 함께하는 반도체 동맹 결성 추진안에 대한 의견도 개진된다.

오랜 기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존 부지를 개발해 예산을 마련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국가 주도 특별법 제정 등에 힘을 모은다.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빛가람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 조성 문제로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여 해법이 주목된다. 공동발전기금은 애초 혁신도시 현안사업들이 마무리되는 2023년부터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이었으나, 기금에 대한 이견이 장기화하면서 조성시기, 규모, 사용처 등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또 화순 동북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주요 현안과제에 포함돼 공동으로 추진된다.

전남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전남만의 현안이 아닌 광주·전남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 아래 머리를 맞댔 계획이다.

이밖에 논의될 신규 협력과제로는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호남권 점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광주·전남 광역철도 건설, 광주·전남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광주·전남 연계 에너지산업 협력확대, 탄소중립·에너지대전환 기후동맹 선언, 광주·전남 우리쌀 소비촉진 협력, 관광 브랜딩 사업 상호

협력 추진 등 11건이다.

최근까지 논란이었던 나주SRF발전소 문제는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별도 실무협의 회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은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추진중인 과제인 빛고을 스마트 메가시티,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 경제공동체 구축 등 초광역협력사업 5건 ▲하남~장성 삼계 광역도로, 지역 철도망(경전선·달빛내륙철도) 구축 등 SOC 관련 4건 ▲광주·전남에너지밸리 조성, 공공기관 2차 추가 이전 등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 관련 5건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 통합본부 설치·운영 등 2건 ▲남도 달밤예술여행지 육성 등 관광 협력 2건 ▲2038하계 아시안게임 및 COP33 유치 등 기타 협력사업 6건 등 26건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상생협력을 통해 그간 지 지부진했던 현안과 핵심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4년 구성된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현재까지 64개 협력 과제를 발굴, 34개를 완료했다.

민선 7기에서는 2018년부터 연간 한 차례씩, 모두 네 차례 열렸다. 출범 초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공항으로 이전과 함께 군 공항 이전 협력을 약속하는 등 상생 분위기가 무르익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길용현·오선우 기자



시원한 미숫가루 드세요

광주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2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지역자율방재단원들이 온열질환 발생 예방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미숫가루, 얼음생수 등을 나눠주고 있다.

/김생훈 기자

옛 전남도청 복원, 내년 3월 첫삽 뜬다

전체 사업비 255억→466억 증액
11월 설계 마무리...2025년 완공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가 내년 3월 첫 삽을 뜬다.

문화체육관광부 27일 “옛 전남도청 복원 총사업비를 466억원으로 증액하고 본격적으로 복원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산하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지난 2019년 8월 발족 이후 광주·전남 4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시민복원대책위원회와 협의해 도청 복원을 위해 필요한 추가 공사비와 신규 전시콘텐츠 비용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총사업비 조정절차(2020년 9월~2022년 6월)를 거쳤고, 기재부는 옛 전남도청 복원에 드는 총사업비를 기존 255억원에서 466억원으로 211억원 증액 확정해 최종 반영했다.

추진단은 이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옛 전남도청 건물 6개 동에 대한 복원 설계를 오는 11월까지 마무리하고 공사 발주와 입찰 과정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현장 공사를 시작한다.

또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진과 서사, 영상, 관계자 구술 등을 계속 확보하고 취득한 자료를 교차 검증한 후 내년 하반기에 전시 기획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5년 3월 완공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추진하고 있다”며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민주·

인권·평화 등 역사적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자 현장 교육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과정에서 전체 철거될 위기에 처했지만, 5·18 단체와 지역사회의 보존운동으로 별관 일부가 헐린 상태에서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울=강병운 기자

INSIDE NEWS

자치경찰위 시책 가시적 성과
물가·폭염에 취약계층 ‘이중고’
기획 / 이상철 곡성군수

▶3면
▶7면
▶11면

50년 새 전남 농업인구 239만명 줄었다

고령인구 비중은 43.4%p 급증

50년 전과 비교해 전남의 농업인구가 200만 명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내놓은 전남 농업인 변화상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남의 농가는 50년 전인 1970년과 비교해 31만7,000가구, 농가인구는 239만8,000명 감소했다.

전남 농가 수는 1970년 45만4,000가구에서 2020년 13만7,000가구로 69.8% 감소했고, 농가인구는 267만8,000명에서 28만명으로 89.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농가에서 전남의 비중은 1970년 18.3%에서 2020년 13.2%로 5.0%p 감소했고, 전남

가구 중 농가 비중은 1970년 67.2%에서 2020년 18.0%로 49.2%p 줄었다. 1970년 44.5%였던 전국 가구 중 농가 비중은 2020년 5.0%에 그쳤다. 농업인구 감소와 함께 농촌의 고령화 현상은 급속히 진행 중이다.

2020년 기준 전남 농가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중은 48.6%로 1970년 5.3%에 비해 43.4%p 증가했다. 1970년 5.9명이었던 전남의 농가 평균 가구원수는 2020년 2.0명으로 변했고, 1인 농가 비중은 1970년 1.8%에서 2020년 26.9%로 크게 증가했다.

/홍승현 기자

6·1지방선거 대체휴무 내일 쉽니다

33
전남매일 창간

최고의 기술력으로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아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통신·철도·도로·항만
국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설·보수·보강 전문기업

통신 공사부문
유무선 통신
KT SKT
1차 협력업체
AI 기반 통신 융합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보강 부문
철도 터널 교량 보수·보강
고속도로 유지보수
항만 보수·보강
원자력발전소 시설 보수·보강

이케이엠
(주)국안이앤씨
(주)케이엠로지스
(주)케이엠이앤씨
(주)국민레저산업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나길 26 T:062-602-5656 F:062-655-5300
www.kukminco.kr